

곡성군, 곡성세계장미축제 준비 '한창'

내달 17-26일 섬진강 기차마을 일대서 'WE THE ROSE' 뮤지컬 콘서트 개막 공연·로즈 갈라쇼 등 볼거리 풍성

곡성군이 장미로 하나되는 세상을 꿈꾸며 제14회 곡성세계장미축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곡성군에 따르면 오는 5월17일부터 26일까지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일대에서 '제14회 곡성 세계 장미 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곡성세계장미축제의 주제는 'WE THE ROSE'로, 이는 'WE are THE ROSE'의 줄임말로 '우리 모두가 아름다움 장미'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곡성만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장미 축제를 만들기 위해 축제의 주요 컨셉을 'THE RED'로 설정했다.

'RED'는 로맨틱(Romantic), 흥미진진함(Excitement), 즐거움(Delight)을 의미하며, 이는 강렬한 빨간색과 그 색상이 주는 낭만적이고 신나는 느낌을 축제 전반에 걸쳐 표현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공연과 프로그램에 중점을 둔 전통적인 개막식 대신, 뮤지컬 콘셉트로 준비된 기획 공연을 통해 축제의 시작을 알릴 계획이다. 여기에 RED콘셉트에 맞춘 The Romantic 콘서트 '로즈 블로섬', The Exciting 콘서트 '장미꽃 콘서트', '아모르 트

롯 투나잇', The Delight 콘서트 '로즈 갈라쇼', 뿐만 아니라 눈 앞에서 생생히 펼쳐지는 '게릴라 왈츠', '신 장미풍류' 등 곡성 장미축제만의 기획 공연으로 풍성한 볼거리를 준비 중이다. 또한 '축제장 곳곳이 모두 컨서트'라고 할 만큼 다양한 공연과 체험이 있는 곡성세계장미축제에는 올해도 빠짐없이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예술단체 31개 팀, 곡성군립청소년오케스트라, 그리고 곡성 출신 가수들이 곡성의 장미축제를 세계에 알리고자 무대를 함께 한다.

더불어 군은 지역민과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축제의 장소를 섬진강 기차마을에만 국한하지 않고 곡성읍과 옹곡면 일대로 확장해 섬진강 동화정원, 곡성 군민회관, 똑방 마켓, 곡성 어린이도서관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공연, 전시회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곡성군은 주말과 휴일에 방문하는 대량의 관광객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 철저한 주차 안내 및 교통 통제 계획을 세우고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더불어 1회용품 사용을 하지 않는 친환경 축제를 목표로, 축제장 내 식음료 구역에서는 대화용기를 제공하고 회수 체계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부당한 요

금 요구를 방지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물가 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물가 모니터링도 운영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모든 콘텐츠와 프로그램 구현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기차마을의 장미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라며 "올해를 문화관광축제로도 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오감만족의 축제, 안전사고 없는 축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섬진강기차마을은 지난 1998년 폐선된 전라선을 활용해 대표적인 기차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곡성군은 지난해 기차마을 특구 고도화사업을 통해 기존 4만㎡였던 기차마을 장미정원을 7만5천㎡로 두 배 가량 확장한 바 있다. /곡성=김영필 기자



GS칼텍스 여수공장 작업자가 추락보호 안전장치(왼쪽)와 스마트 가스감지기 등을 착용하고 안전 대정비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GS칼텍스 제공>

스마트 안전 장비로 대정비작업 '순조'

GS칼텍스, TA 공사비용 총 1천137억·연인원 6만2천명 투입

GS칼텍스는 9일 "스마트 안전 장비를 대거 투입해 올해 상반기 대정비작업(Turn Around, 이하 TA)을 안전하게 마쳤다"고 밝혔다. GS칼텍스는 지난 2월 말부터 총 5개팀 14개 공장에서 진행한 TA에 총 1천137억원을 투입, 1일 평균 1천550명, 연인원 6만2천명이 참여한 대정비를 마쳤고 4월 초부터 TA 대상 공정을 순차적으로 정상 가동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각각 70-80% 규모로 지역 물

품 구입, 지역 업체 활용, 지역민 채용 등이 동시에 이뤄져 여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인건비로만 2천210억원을 포함해 총 3천200억원을 TA 비용으로 투자한 바 있다. 통상 정유공장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국가가 정한 기한 내에 주기적으로 공장 시설 가동을 멈추고 청소와 점검을 포함해 시설 정비와 소모품 교체 등을 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대정비작업(TA)'이라고 하며 각 공정별로 4

~5년 주기로 진행된다. 이번 TA에는 스마트 안전 장비를 대거 투입해 작업장 안전 확보를 한 것도 눈에 띈다. 특히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실수인 '휴먼 에러'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적용했다. 김성민 GS칼텍스 CSEO-대표는 "그간의 경험과 선진 사례를 적용해 사람, 설비, 시스템 측면에서 다양한 안전보호 조치를 선제적으로 실행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협력사 임직원과 여수공장 구성원들이 원칙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 결과 무사고·무재해로 올해 상반기 대정비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여수=김진선기자

구례군, 흙살리기 '다시마액비' 효과 탁월

실증시험 결과 영양분 함량 증가·수확량 10.6% ↑

구례군이 흙살리기 사업으로 가능성 다시마액비를 농작물에 실험한 결과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례군은 9일 "구례군농업기술센터에서 탄소중립 흙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가능성 다시마액비를 시설채소(오이, 애호박)에 적용한 실증시험을 추진한 결과 칼륨, 마그네슘, 망간 등 주요 영양분의 함량은 증가하고, 과육의 단단한 정도를 나타내는 경도는 57%, 수확량은 10.6% 향상됐다"고 밝혔다. <사진> 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내 오이, 애호박 재배 농가 10호와 구례군농업기술센터의 스마트팜 테스트 베드에서 가능성 다시마액비를 관주 및 엽면시비한 처리구와 무처리구로 나눠 실증시험을 실시했다. 특히 물에 희석한 가능성 다시마액

비를 작물체 잎에 직접 살포하는 엽면시비의 경우보다 점적 호스 등을 이용해 뿌리 부근의 땅에 직접 주입하는 관주의 경우가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시설채소의 경우 재배 기간 중 일반 액상 비료 또는 가능성 액비 등을 지속

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다시마액비는 농가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다시마를 함유한 가능성 액비의 국내 유통량이 증가 추세에 있다. 박근규 구례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실증시험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인 가능성 다시마액비를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담양군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 공모 선정

사업비 20억 확보...추월산지구 화장실·주차장 개선

담양군은 9일 "담양호가 전남도 2024년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에 선정돼 낡은 기존 시설을 정비·개선한다"고 밝혔다. 2024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은 전남도내 관광지 27개소, 관광특구 2개소 등 총 29개소 중 3곳을 선정해 노후 관광시설과 프로그램을 보완·재생하는 공모

사업이다. 군은 이번 선정을 통해 오래된 화장실과 주차장을 개·보수하고, 야간 볼거리를 추가해 추월산 지구에 건립 예정인 국제명상센터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김은영 관광과장은 "이번 공모에 선

정된 '담양호(추월산지구)'는 1977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돼 47년이 지난 노후 관광지로서, 매년 추월산과 담양호 용마루길을 중심으로 약 4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호 군수는 "공모사업 확정에 따라 담양의 대표 관광명소인 담양호 관광지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을 비롯한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고 몸과 마음이 힐링하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담양=정승근기자

광양시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 지원"

8억5천여만원 투입...총 195동 지원 예정

광양시는 9일 "지붕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피해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총 8억4천800만원을 투입해 ▲주택 140동 ▲지붕개량 20동 ▲주택의(축사·창고) 35동 등 총 195동에 대해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주택 지붕 개량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주택 지붕 개량비는 우선 지원 가구와 일반 가구를 구분해 차등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등 우선 지원 가구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전액 지원되고 지붕 개량비는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된다. 일반 가구의 주택 철거·처리비는 1동

당 최대 700만원, 지붕 개량비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비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지원은 200㎡ 이하의 면적에 대해 지원하며, 한센인 폐축사의 경우 철거처리비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 기한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건축물이 소재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자원순환과(061-797-2794)로 문의하면 된다. 또 광양시는 올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지난 2021년 실태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건축물을 추가 조사하는 것으로 건축물대장이나 항공사진 외에도 현장 조사를 통해 석면 건축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광양=양홍렬기자

고흥군, 프랑스 고급 식품시장 200만달러 수출

(주)리엔코 '미시가' 브랜드로 8개 고흥 제품 론칭·판매

고흥군이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고흥 농수산물 가공품 200만달러 수출 협약을 체결하며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 9일 고흥군에 따르면 공영민 군수를 단장으로 한 '고흥 농수산물 수출개척단'이 지난 8일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주)리엔코(RIZ ET CO SAS)와 고흥 농수산물 가공품 200만달러(약 27억6000만 원)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주)리엔코는 프랑스에 한국 전통 발효 식품을 소개·판매하기 위해 K푸드 브랜드 '미시가'를 만들어 파리의 루이비통 직영 봉막쉐백점 내에 '포레(프랑스식 한국 표기)' 식품코너를 운영하는 등 21개 이상의 현지 고급 식품 유통채널을

통해 K푸드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또한 파리의 미시가 매장은 파리가 주관하는 식문화 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현지인을 상대로 한국 음식 쿠킹 클래스 운영, 전통 발효식품 판매 등 프

랑스인들에게 K푸드의 우수성과 한식 발효 트렌드를 알리는 문화 점령 역할을 하고 있다. 공영민 군수는 "이번 협약은 고흥 농수산물의 품격을 한 단계 올린 성과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흥군'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인 차별화된 방식으로 고흥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고흥 문화 등을 유럽과 교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최병환기자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 이색 공간 마련 '눈길'

화순미림·벨리콤·물명준·몽환의숲·춘양 봄별정원 등

화순군이 깊어 가는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로 초대한다. 9일 화순군에 따르면 오는 19일 막을 올리는 '2024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는 지난해 봄·가을에 이어 고인돌 유적지에서 개최되는 3번째 축제다. '화순으로 봄소풍 가자!'라는 주제로 가볍게 떠나는 피크닉을 기본 콘셉트로 잡았다. 특히 지난해 호평을 받았던 화순미림에는 샛노란 유채꽃을 배경으로 핑크빛 초대형 벨리콤 조형물을 설치해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핫 포토 스팟을 조성할 예정이다. 물명준에는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며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민백, 피크닉

매트를 완비했고, 물명준 끝 언덕에 위치한 몽환의 숲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자연 경관과 봄꽃 나뭇배를 비롯한 아름다운 포토 조형물의 폴라



봄꽃 나뭇배(몽환의 숲).

보로 관광객에게 이색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보검재를 넘어 춘양 방면으로 내려가면 넓게 펼쳐진 잔디광장에 불발정원이 보인다. 젊은 감각을 활용한 팝업 스토어 형식의 야외 카페를 중심으로 휴식존·포토존을 조성해 축제장을 찾은 가족, 연인들에게 특별한 안식처를 제공할 방침이다. /화순=이병철 기자



화순 미림. <화순군 제공>